

1. 서론

한미간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와 AI(Avian Influenza: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연일 매스컴이 난리로, 요즘처럼 축산업이 국민들의 관심을 끈적은 드물다.

축산인 모두가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하는 명제가 남아있지만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년 같으면 4월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진정되어 복경기를 대비해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 시기지만 양계 업계에서는 언제 진정이 될지 관망만하고 있다.

올해는 5월에 들어서도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까지 퍼져 놀이동산의 가금류, 호수에서 노니는 청둥오리까지도 살처분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를 통하여 살처분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 소비는 30~50% 급감하였다. 정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동남아성 변종 바이러스이고 인체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밝힐 뿐이고, 생물학적 감염경로도 추정만 할뿐 수의과학검역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들어가는 농심은 답답



박 윤 찬 소장
(주)마니커 사료기술연구소

할 뿐이다.

지난 2007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조그만 문구하나가 전 세계의 사료업계를 흔들고 있다.

내용을 보면, “향후 10년내에 미국에서 소비하는 가솔린의 20%를 줄여 옥수수로부터 생산된 에탄올

로 대체하겠다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탄올 생산 공장이 400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후 미국은 옥수수 에탄올 생산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의 작부 면적은 증가한 반면 사료용 옥수수는 공급량이 줄었으며, 작부면적 감소로 인한 사료용 대두박이 감소하여 사료곡물 파동의 진앙지가 되었다.

동시에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탄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작물(옥수수, 카사바 등)을 경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일파만파 번져 지금은 곡물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급자족을 위한 축산업의 발달로 생산되는 사료원료 등을 수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와 가장 근접한 중국산 사료원료의 도입이 차단되었고, 곡물용 중급 선박(30,000~50,000톤)이 철광석등 중급



업에 필요한 자원 이동에 동원되어 곡물운반 용 선풍이 부족하여 선임이 치솟으면서 원료의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이와 같이 겹쳐진 악재 속에서 시작된 사료 원료의 파동은 사료 값 폭등으로 이어져 생산 원가 증가로 인한 육계계열화업체의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봉착하는 계열화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2. 본론

위에서 언급한대로 육계계열화 업체는 사료 값 폭등으로 생산원가는 치솟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소비는 급감하여 도계냉동비축량은 증가하고, 낮은 육계가격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으며, 복 경기에 대비해 예년 같은 평상 수준의 30%이상을 더 입추하였으나, 요즘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입추량을 조절하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육계 생산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로 사료가격의 폭등과 인상요인 잠재는 육계계열화업체들의 수익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수당 800~900원하던 사료가격이 2008년 5월 현재, 수당 1,200~1,300원으로 47%가 상승하였다.

1) 옥수수, 대두박 폭등과 에너지원, 부원료공급 부족지속

육계 사료원료 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옥수수와 대두박이다. 사용기준으로 2007년 9월 옥수수가격이 220달러대였으나 2008년 5월 현재는 300달러로 36%가 인상되었으며, 대두박의 경우 동월 280달러 하던 것이 460달러로 64%의 인상폭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사료가격은 가중평균 가격으로 kg당 320원에서 470원으로 47%가 인상되었다.

이는 IMF때의 40%보다 더 인상된 것이며 향후 옥수수는 올해 말 사용기준으로 345달러에 이를 전망이고 강세 혹은 폭등세(미국의 에탄올 플랜트 가동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을 감안한 예상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사료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낮은 육계가격 지속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2008년 1월 육계생계 시세가 최고 1,680원까지 상승하여 평균 시세가 1,567원이었으나, 5월 현재 1,360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료가격 폭등 및 연료비, 사육비 증가로 생산비는 상승한 반면 육계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통닭을 위주로 소비하는 형태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일만한 가공육을 생산하기 위해 2.5kg이상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어떤 요인으로 육계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계열화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적자를 감수하여야 한다.

3) 소비 감소로 도계 냉동 비축량 증가

요즘 계열화업체들의 고민은 소비가 되지 않아 사육기간과 중량을 늘여서(1.7kg, 35일 이상) 출하하고, 도계 냉동비축량이 급증하는 것이다. 냉동 창고 보관료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경영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3. 결론

육계 생산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료 값 폭등과 고유가로 인한 휘발유의 대체원료로 옥수수가 사용되는데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단체 및 전체국민이 원하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장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우리 육계 산업에 생산비를 증가시키는지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계가격은 이러한 연관성에 기인해서 육계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계가격과 환경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개발기금도 이러한 이유에서 계열화업체의 고통을 분담하는 자금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다자간 FTA 체결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만연 등은 자연스럽게 육계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닭고기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닭고기를 원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밀집사육을 하여서는 항상 질병에 시달릴 것이고, 사료요구율도 낮아 사료비가 많이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를 보면 6~8월에 몰려있어 연중소비량을 고려하면 3개월 빼고는 필요이상(20~30%)의 농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